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

박영흠 **

(서강대학교 언론문화연구소 연구원)

김 군 ***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연구는 오늘날 한국 저널리즘의 주요한 병폐로 거론되는 정파성 문제를 기존의 설명에서 간과해온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한국 사회의 저널리즘과 그들이 형성하는 정파 갈등은 이념과 노선이 아닌 감정과 도덕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서구 저널리즘의 연구 틀과는 다른 접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뒤르케임의 의례 이론에 근거하여 저널리즘이 한국 사회에서 의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다. 저널리즘에서 의례적 속성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것은 뉴미디어 기술이 가져온 변화가 시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이전보다 더 집합적인 조건에서의 뉴스 이용을 가능케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연구는 이항대립적 현실 규정, 집합적 열광의 형성, 도덕 공동체의 창조라는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저널리즘의 의례성을 규명한다. 또 한국 저널리즘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탐색적 차원의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제언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다.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소통을 막는 갈등 구조의 기원과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과정에 저널리즘이 개입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어: 저널리즘, 의례, 뒤르케임, 정파성, 집합적 열광

* 유익한 조언과 논평을 보내주신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youngam38@naver.com

*** kyunkim@sogang.ac.kr, 교신저자

1. 들어가며

한국 저널리즘의 심각한 병폐로 정파성이 지적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강명구, 2005; 김영옥, 2011; 최영재, 2011; 최진호·한동섭, 2012; 김동윤·김성해·유용민, 2013;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과도한 정파성이 저널리즘에 대한 신뢰의 하락, 나아가 저널리즘의 근본적 위기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심화된다. 이제 자신과 대립되는 정권이나 정파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극단적 저주를 퍼붓는 저널리즘의 모습은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비판에 귀 막는 언론에 있겠지만 학계와 시민사회도 실효성을 갖지 못하는 기존의 비판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언론의 정파성에 대한 기존의 비판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인’이라는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개별적 실천에 대한 규범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서구적 전문직주의를 준거로 내세우고 저널리즘이 그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전문직화만 달성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은 한국 저널리즘이 서구와 동일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작동하며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구 저널리즘과 동일한 내적 논리를 갖는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그 자체로 검증이 필요한 명제이며 오히려 한국 사회가 갖는 역사적·문화적 맥락의 차별성 때문에 한국 저널리즘은 서구의 그것과 상이한 성격과 기능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정파성의 성격만 보더라도 그렇다. 서구 저널리즘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 정파성이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받는 것은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이 갖는 고유한 성격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은 합리성에 바탕을 두고 도출된 이념과 노선보다는 감정과 도덕에 기반을 둔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고 다른 한쪽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는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반대쪽 진영은 논리적 근거에 기초한 이성적 비판을 받기보다는 사실의 왜곡이나 과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감정적 공격과 악마화(demonization)의 대상이 된다. 자신들은 본질적으로 선이고 상대방은 그 자체로 악이라는 감정적·도덕적 정파성은 타협과 합의를 가능케 하는 공통의 영역이나 중간 지대를 허락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의 갈등과 언론 간의 쟁투가 극단화되고 선의의 경쟁보다는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한 증오의 대결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건전한 경쟁과 합리적 토론을 추구하는 서구 저널리즘의 정파성과는 상이한 성격의 정파성이다.

따라서 합리적 선택과 이해관계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정치사회적 구조나 시장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을 이해하려는 기존 접근은 설명력에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에서 유달리 도드라지는 측면, 즉 정파적 투쟁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문화적 요소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서구와 상이한 한국 저널리즘의 작동 메커니즘과 정파성의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적 맥락에 적용하는 분석틀을 기계적으로 대입하기보다 문화적 영역의 다이내믹에 주목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 글은 지금과 같은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을 초래한 다양한 요소 가운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지만 기존의 설명에서는 간과되었던 문화적 측면을 통하여 정파성을 해석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 영역의 분석적 자율성을 주장한 후기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 전통에 근거하여 의례(ritual)의 개념을 살펴본 뒤, 한국의 저널리즘이 사회 공동체에서 의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과 저널리즘의 성격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어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이론적 제언의 타당성을 한국 사회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검토하는 탐색적 차원의 분석을 수행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소통을 가로막는 갈등 구조의 기원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 저널리즘이 개입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의례와 커뮤니케이션

의례는 이미 인류학, 종교학, 사회학, 역사학 등 광범위한 분과 학문에서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단순히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의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 대상이자 연구 방법이 된다(이희은, 2014, 33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례라는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계를 분명히 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고프먼은 의례를 ‘개인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대상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형식적이고 관례화된 행위’라고 규정했고(Goffman, 1967) 셰크너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매우 양식화된(stylized) 퍼포먼스’로 표현했다(Schechner, 1998). 로텐불러는 ‘진지한 삶에 상징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참여하기 위해 적절하게 패턴화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Rothenbuhler, 1998). 콜드리는 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위, ② 형식화된 행위, ③ 초월적 가치를 포함하는 행위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의례를 정리했다(Couldry, 2003). 이 장의 목적은 이처럼 학문적 초점과 관심에 따라 조금씩 다른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을 통합하여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유용한 방향으로 의례를 재규정하는 데 있다.

대다수 학자가 의례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지점은 뒤르캤의 〈종교 생활의 원초적 형태〉이다. 뒤르캤은 여기서 상징체계가 성(聖)과 속(俗)의 이항대립적(binary) 분류 체계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체계가 종교적 의례를 통해 생산 또는 재생산되며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결속이 공고화된다는 점을 밝혀냈다(Durkheim, 1965). 이때 주목할 점은 성스러운 것도, 속된 것도 대상의 내재적 속성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과 속의 분류 체계는 자의적이다. 성스러움은 이분법적 분류 체계 내에서 속된 것으로부터 ‘격리되고 금지된’ 차이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Durkheim, 1965, pp. 52-62). 그런 점에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선형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먼저 분류 체계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비로소 성스러운 것/속된 것이 식별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최종렬, 2007, 20쪽).

자의적인 성과 속의 분류 체계를 자연스러운(natural) 분류 체계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의례이다(최종렬, 2007, 21쪽). 뒤르캤에게 의례는 단순히 신앙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호체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고 주기적으로 강화되는 방법들의 집합이다(Durkheim, 1965, p. 464). 즉, 의례는 이항대립적 상징체계를 창출하는 동시에 실천을 통해 재생산하는 장이다. 의례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성스러움이 형성되고 기존의 성스러움이 갱신된다.

의례를 통해 생산/재생산되는 이항 코드는 현실을 인지적으로 이분화하는 효과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가치평가적으로도 이분화한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가치평가와 판단이 이성의 차원을 넘어 감정과 도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성스러움을 구성하는 상징, 의미, 실천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추구되지만 속된 것은 정서적 거부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규제되고 배척된다(박선웅, 1998, 913쪽). 뒤르캤의 이항대립이 의미의 구성에 대한 구조주의적 비판 연구와 결정적으로 차별화되는 지점이 여기에 있다. 의례는 사회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격렬한 감흥을 형성하며 이것이 인간 행위 및 사회 구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의례가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효과는 공동체 내부의 결속과 통합이다. 사회적 연대의 문제는 프랑스 제3공화정 시기에 활동하며 공화주의적 신념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통합된 새로운 사회 공동체의 탄생을 열망했던 뒤르캤이 〈사회법론〉 당시부터 집중해온 궁극적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빼놓고 의례의 기능과 의미를 논하기는 어렵다. 의례는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성과 속을 명확히 구분시키고 성에 대한 경외와 속에 대한 거부 및 분노를 집합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공동체적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기제이다(박선웅, 1998).

뒤르켐은 의례 과정에서 이러한 효과를 창조하는 핵심으로 ‘집합적 열광’(collective effervescence)을 꼽았다. 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감정을 공동으로 체험하고 공동의 행동 속에 표현하면서 서로를 고무시키고 증폭시킴으로써 만들어낸, 개인으로 있을 때는 경험하기 어려운 예외적 힘을 갖는 강력한 흥분 상태가 바로 집합적 열광이다(김종엽, 1998, 300-301쪽). 원시 사회의 원주민이 종교적 의례의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잊고 지내던 가치들을 강도 높게 체험하는 행위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집합적 열광은 첫째, ‘성스러운 신념’을 생성하거나 다시 활성화(revitalize)시킨다. 둘째, 개인에게 하나의 외재적 힘으로서 작용하여 그를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성스러운 세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 셋째, 참여자들 간의 접촉을 배가시키고 공통된 전통과 신념, 위대한 조상들에 대한 기억, 집합적 이상을 재생시키면서 그것에 기초한 공동체적 연대감과 일체감을 생성 또는 강화한다(박선웅, 2007, 32-33쪽; Durkheim, 1965, p. 390). 성스러운 신념과 관련된 상징적 행위를 하며 집단적 흥분 상태를 강도 높게 체험하는 과정에서 세속적인 것이 성스러운 것으로 변화하며 개별적 일상에 집중하는 세속적 인간이었던 개인이 자기를 초월하여 부흥된 가치를 중심으로 맺어진 공동체의 일부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처럼 집합적 열광을 통한 사회 통합의 메커니즘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례 이론은 개별 주체의 인지 행위를 중심으로 한 이데올로기론과도 명확히 구분된다.

즉, 의례는 집합적 열광 속에서 집합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을 창조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연대를 수립하고 공동체를 형성케 하는 사회 통합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집합적 열광은 나아가 장기적 형태로 전개되고 조직화되면서 일상적 삶의 맥락으로 확장되어 ‘일반적 열광’(general effervescence)의 형태를 띠게 된다(김종엽, 1998, 36쪽).

짚고 넘어갈 사실은 뒤르켐이 의례를 크게 긍정적 의례(positive rites)와 부정적 의례(negative rites)로 구분하고 자신의 논의를 주로 긍정적 의례에 집중시켰다는 점이다(김종엽, 1998). 긍정적 의례는 성과 속 사이의 쌍방적 교류를 형성하는 의례를 말하고(Durkheim, 1965, p. 366), 부정적 의례는 성과 속을 분리시켜 두 영역이 서로 뒤섞이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터부’ 형태의 의례를 가리킨다(Durkheim, 1965, p. 338).

그러나 긍정적 의례의 결과로서 창조되는 공동체의 결속과 통합을 강조하는 뒤르켐의 논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통합의 이면에는 언제나 억압과 저항이 존재하고 무수히 많은 사회적 적대가 발생한다. 사회 통합의

기제로서의 의례는 뒤집어 본다면 사회 갈등을 표출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박선웅, 1998). 뒤르캤의 긍정적 의례는 이 같은 역동적 과정을 열광과 통합의 소용돌이 속에 모두 용해시켜버린다. 공식적 가치 체계로부터 소외된 소수자에 대한 고려가 생략된 그의 의례 이론은 본래의 정치적 의도로부터 유리되어 자칫 지배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대항적 가치의 생성과 사회 문화적 변동을 초래하는 다양한 형태의 의례를 포괄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Lukes, 1975). 대안적 가능성을 배제하고 정치 과정의 복잡한 다이내믹을 생략한다면 의례 개념은 스스로의 이론적 특장을 상실시킨 채 매우 정태적이고 무기력한 개념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부정적 의례를 중심으로 한 메리 더글러스의 상징인류학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글러스는 사회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이항적으로 분류하고 ‘더러운 것’을 정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사회 구조와 도덕적 질서를 강화한다고 보았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구분은 위생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러운 것은 지배적인 상징적 질서 체계와 분류로부터 명백히 이탈했거나 분류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Douglas, 1966/1997, 69쪽). 깨끗한 것에 의한 질서는 더러운 것에 의해 도전받지만 체계는 더러운 것을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고 공격한다(Douglas, 1966/1997, 75쪽). 이때 사회가 질서를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적 행위가 바로 의례이다. 의례는 금기를 위반하고 체계를 이탈한 ‘위험한 것’을 배제하거나 징벌함으로써 경험의 통일을 창조한다.

이 같은 더글러스의 분석은 상징적으로 규정된 오염과 금기의 분류 체계와 이를 재구축하는 의례가 사회통제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의례는 상징에 의해 통일된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행위이며 존재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사회 중심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시도이다(Douglas, 1966/1997). 사회의 지배적 가치에 반하는 존재는 더러움에 오염된 것으로 낙인찍히고 따라서 정화되거나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표상된다. 즉,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의 분류 체계는 지배와 종속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표상체계이자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박선웅, 1998, 914-917쪽).

더글러스는 공동체의 창조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다이내믹 속에서 의례를 고찰한다. 더글러스의 이론에서 의례는 단순히 공동체를 생산·재생산하는 기제가 아니라 복잡다양한 정치적 긴장을 만들어내고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공간이다. 한발 더 나아가 그녀는 의례를 언어와 같은 것, 담론과 같이 다루어져야 할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식’으로 규정함으로써(Douglas, 1970, p. 21) 의례 과정을 지배적 질서에

의한 일방적 주입과 통제의 과정이 아닌, 담론처럼 복잡하게 얽힌 의미망 속에서 다양한 집단 사이의 대립과 투쟁을 매개하는 복수의 상호작용적 과정으로 설명한다. 이제 의례는 지배와 종속의 단순한 도식에서 벗어나 다원적 집단들이 각자의 도덕 질서와 상징적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헤게모니 투쟁의 형태로 간주된다.

더글러스의 논의를 확장하면 의례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의 통합과 질서 구축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적대와 갈등을 설명하기 위한 주요한 이론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집합의식은 사회의 모든 성원을 포괄하는 전체 공동체에서 뿐만 아니라 국지적 집단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으며 의례 이론은 이들 집단 공동체 간의 갈등을 다루는 데 유용할 수 있다(Collins, 2004/2009, 46쪽). 다양한 형식과 층위의 커뮤니케이션과 상징적 투쟁을 의례로 개념화함으로써 담론구성체 내의 동학을 의례의 사슬 또는 망(網)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뜨거운 집단적 열정이나 도덕적 가치에 따라 추동되는 정서적 차원의 갈등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설명하는 데 의례가 유용한 개념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의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의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집단들이 자신에게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구성하기 위하여 형식화된 집단적 실천을 통해 개인을 특정한 도덕적 가치를 중심으로 결속된 공동체로 통합시키는 과정’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의례 개념은 원시 전통 사회의 종교적 실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세속적 행위의 구조와 기능을 탐구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미 많은 후기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자가 특정한 사회 제도나 사회 집단에 의해 수행되는 상징적 행위들이 의례로서 기능하며 사회문화적 통합이나 변동, 분열을 이끄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대관식(Shils & Young, 1975), 청문회(Alexander, 1988), 전쟁(Smith, 1991), 민주화운동(박선웅, 2007), 전직 대통령의 장례(박진우, 2010) 등이 현대 사회의 세속화된 의례로서 탐구된 바 있다.

의례의 개념을 현대 사회의 다양한 현상에 폭넓게 적용 가능하도록 만든 핵심적 요소가 미디어이다. 미디어는 고립되었던 개인을 다양한 수준과 차원에서 ‘함께 있도록’(co-presence) 해준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의례를 가능케 한다. ‘미디어 이벤트’의 개념을 제안한 다얀과 카츠는 텔레비전이 대관식, 국장(國葬), 왕자의 결혼식 등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의 비(非) 일상적 행사를 중계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을 통합시킨다고 주장했다(Dayan & Katz, 1992). 콜드리는 미디어가 재현하는 내용을 일상적으로 시청하고 그에 관하여 대화하며 셀레브리티를 실제로 만났을 때 집중하는 등의 다양한 행위를 망라하는 ‘미디어 의례’와 그로 인해 미디어가 권력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 주목한다(Couldry, 2003). 코틀은

고도로 미디어화된 현대 사회에서 한층 더 다양한 의례들이 가능해진다면 미디어화된 의례 (mediatized rituals)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Cottle, 2006).

이희은(2014, 38쪽)은 의례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더욱 확장될 것이라 전망하며 앞으로는 기존의 연구들이 주목했던 사회 통합을 야기하는 의례가 아닌, 통합 외의 결과를 불러오는 의례들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뒤르켐과 더글러스의 이론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한다면 의례 이론은 분열과 갈등, 대립과 적대를 초래하는 미디어 현상을 분석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소통의 단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이론적 도약은 긴요하기도 하다.

3. 의례로서의 저널리즘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저널리즘이 한국 사회에서 의례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한다. ‘의례로서의 저널리즘’이라는 시각은 정보의 제공을 통해 지식으로 무장한 양식 있는 시민(informed citizen)을 배양하여 민주주의의 지속과 발전을 도모하는 ‘계몽적’ 사회 제도로서 저널리즘을 파악하는 기존의 관점과 차별화된다. 이는 저널리즘의 성격과 기능이 이전과 비교할 때 단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거의 모든 형태의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정 부분 의례적 요소를 갖는다는 점에서 과거의 저널리즘도 의례의 성격을 가져왔고 오늘날의 저널리즘이 정보 전달과 계몽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최근 저널리즘에서 의례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 이제는 오히려 다른 기능과 성격들을 압도하기 때문에 저널리즘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 속성으로서 의례에 주목할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콘텐츠를 전달하는 미디어가 무엇인가’에 따라 집합적 열광의 정도와 성격에 차이가 있지만 저널리즘은 본래 다양한 측면에서 의례와 공통점을 갖는다. 역피라미드형이나 객관주의와 같은 특유의 양식화된 글쓰기 방식에 의해 제작된 기사를 매일 아침 조간신문, 저녁 TV 뉴스 등을 통해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은 의례적 성격을 갖는다. 특정한 사회 질서를 추구하며 집합적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 뉴스를 소비하는 개인들을 하나의 사회 공동체로 묶어준다는 점에서도 저널리즘은 의례적 속성을 가져왔다.

그러나 상상을 통하여 간접적·일시적·예외적으로 통합된 공동체를 구성했던 신문과 방송 저널리즘에 비해 최근 저널리즘으로 하여금 비약적으로 강화된 의례적 속성을

갯도록 만든 요인은 역시 디지털 기술이다. 오늘날 일상에 편재하며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뉴미디어 기술은 각종 상징을 사회 구성원에게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하고 대규모의 사회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간적, 시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여 집단 내에서의 응집을 강화하는 의례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Schroeder & Ling, 2013). 뉴스 이용자가 더 집합적인 조건에서 저널리즘을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에는 의례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이 의례화된 것이다.

이 장에서는 뒤르켐이 강조한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오늘날 한국의 저널리즘이 보여주는 의례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속성들은 대부분 뉴미디어 기술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다양한 뉴미디어 기술이 만들어내는 커뮤니케이션 구조 속에서 저널리즘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다음의 요소들을 경험하게 된다.

1) 이항대립적 현실 규정과 도덕적 질서의 구축

사회 세계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는 인지적 과정과 범주화를 중심으로 미디어 의례를 탐구한 콜드리에 따르면, 미디어는 반복적 형식을 통하여 범주(categories)와 사고의 유형(patterns of thought)을 재생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범주 사이의 차이 혹은 경계가 자연스럽게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Couldry, 2003, pp. 24-27). 저널리즘은 다양한 미디어 실천 중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가장 설득력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경험 가운데 많은 부분을 매개하는 저널리즘은 사회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일상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널리즘의 소비는 사회 구성원의 사고의 범주와 상징적 경계를 결정짓고 정당화한다. 특히, 전통적 저널리즘 외에 포털사이트, SNS, 종합편성채널, 팟캐스트 등 다양한 형태의 저널리즘이 편재하고(Hermida, 2010) 스마트폰을 통해 일상적으로 뉴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술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최근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조간신문이나 저녁 메인뉴스를 통해 정해진 시간과 공간에서만 뉴스를 소비하던 과거에 비해 저널리즘이 제공하는 인지적 프레임이 더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다.

저널리즘이 만들어내는 범주와 경계는 단순한 인지적 구분에 그치지 않는다. 체계는 ‘더러운 것’을 ‘위험한 것’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인지된 상징체계와 범주는 가치평가적 분류로 전화되어 도덕적 질서를 준거로 삼은 상징적 폭력의 밑바탕이 된다. 결국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위험한 것)의 이항대립 코드를 생산/재생산하는 과정은 특정한 도덕적 질서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현실을 재편하려는 시도가 된

다. 즉, 한국의 언론은 자신이 속한 정파와 관련된 가치를 ‘성스러운 것’으로, 대립되는 정파와 관련된 가치를 ‘속된 것’으로 규정한 현실을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속된 것’을 비판하고 격리함으로써 ‘성스러운 것’을 보호하거나 강화하고 특정한 도덕적 질서를 생산 및 재생산하고자 한다.

보수 신문에서는 건국 과정과 산업화의 역사를 성스러운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거부하거나 비판하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진보 진영을 악마화하는 상징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조선일보〉는 “전교조가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국가의 정체성을 짓밟고, 나라의 역사를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다거나(〈조선일보〉, 2005) “애국가를 거부하고… 북한 문제에는 애매한 입장을 취한다”고 비난하는가 하면(박정훈, 2012) “제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거나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건실한 국민이 될 수 없으며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꾸짖기도 한다(김창균, 2007). 보수 신문이 특정 집단을 ‘중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철저한 제거를 주장한다고 밝힌 이병욱과 김성해의 연구(2013)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중동의 이념성을 분석한 김세은의 연구(2010)에서 세 신문 모두 반공 이데올로기/국가정체성 차원의 보수성이 두드러지게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진보 신문은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신성시하고 노동과 시민사회적 가치를 절대 선으로 규정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악마화하는 상징체계를 보여준다. 〈한겨레〉가 한나라당을 만발하는 “악마의 꽃”에 비유하거나(손석춘, 2006),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라고 선언하는 식이다(곽병찬, 2015). 이들이 만들어낸 상징체계의 영향력은 신문 독자로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 포털 뉴스와 오피니언 리더들을 통해 끊임 없이 재생산된다.

저널리즘의 본령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이지만 한국의 저널리즘은 권력의 향배와 관계없이 자신의 상징체계를 이탈한 ‘악한 것’만을 비판하고 감시한다. 따라서 자신과 대립하는 정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이들은 ‘할 말은 하는 비판 언론’이 되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권력에 순종하는 어용 언론’으로 돌변한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진보 신문이 비판 언론, 보수 신문이 어용 언론이 되고 현 야당이 집권하면 그 역할이 바뀐다. 보수 신문과 진보 신문이 각각 기획하고 구축하는 도덕적 질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원리는 정확히 동일한 것이다.

2) 집합적 열광의 형성

한국의 저널리즘은 이성적 계몽보다는 감정적 카타르시스의 제공을 추구한다. 정권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숭배 또는 혐오의 감정을 충족시키기를 원하는 수용자들에게 쾌감, 흥분, 분노, 열정 등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진보 성향의 대통령은 보수 신문에 의해 ‘계륵(鷄肋) 같은 존재’라 조롱당했고(홍준호, 2006), 보수 성향의 대통령은 진보 신문에 의해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이코패스에 비유되었다(곽병찬, 2009). <조선일보>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첫 해인 2003년 말 “지금 노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통령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며 “파국적 대립을 정리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4월 총선의 결과를 국민투표의 성격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라 말하는 등 노 대통령의 실각을 꾸준히 거론하여(김대중, 2003) 노 대통령을 지도자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주류집단에게 도덕적 질서가 회복되는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집합적 열광을 목표로 한 저널리즘의 시조라 할 수 있는 팟캐스트 <나는 꿈수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욕설, 사생활과 관련된 루머 등을 여과 없이 내보냄으로써 이 대통령을 혐오하는 진보 성향 유권자 집단에게 도덕적 정화가 이루어지는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최영재(2011)가 말하는 ‘공격 저널리즘’이나 박지영과 김예란 그리고 손병우(2014)가 말하는 ‘사담의 저널리즘’은 이러한 경향성과 무관하지 않다.

저널리즘이 제공하는 카타르시스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만족에 그치지 않는다. 촛불 집회와 같이 많은 이들이 함께 모인 순간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강한 집단적 흥분을 경험하듯, 수용자는 다른 이들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인식을 통해 고립감에서 벗어나고 서로에게 고무되어 감정적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개인 차원에 머무를 때의 감정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렬한 쾌감이나 분노를 체험한다. 실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미디어의 매개를 통하여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상 속에서 ‘함께 있음’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집단적 조건에서 서로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파편화된 가치와 욕망이 집합의식으로 발전하는 집합적 열광의 순간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은 신문과 방송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신장된 ‘함께 있음’(co-presence)의 감각을 제공한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댓글을 읽는 이들은 근대 신문 도입 초기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한 공간에 어깨를 맞대고 모여 집단으로 신문을 읽거나 듣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된다. 특정 이슈에 대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수많은 사람’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때로는 그들과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면서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졌던 정치적 단상은 집합적 열정으로 진화한다. 저널리즘이 만들어내는 집합

적 열광이 올드미디어 시대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기사를 링크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할 때 이용자는 물리적으로 공존하지 않는 어떤 집단과 심리적으로 공존하며 그들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이 공감을 얻고 지지받는다는 감정을 갖게 된다. 또 유사한 정치 성향을 갖는 친밀한 집단 구성원끼리 만든 단체 카톡방에서 기사를 공유하고 시사에 관한 정제되지 않은 담화를 주고받으며 강렬한 흥분과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

문제는 저널리즘이 이처럼 집합적 열광을 생산 또는 재생산하는 의례로 기능하게 되면서 객관성과 불편부당성을 비롯한 저널리즘의 전통적 가치와 윤리가 유보되거나 포기된다는 점이다. 팩트의 왜곡, 교묘한 프레이밍, 자극적인 이름 붙이기나 제목 달기, 조롱과 비하를 담은 막말, 비논리적 추측과 예단 등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점들은 모두 집합적 열광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저널리즘의 생산, 가공, 전파, 소비의 과정에서 집합적 열광이 생성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성스러운 신념’으로서의 집합의식이다. 언론이 만들어내는 집합의식은 한국 사회의 현재에 대한 공통된 해석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공유된 신념과 이상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과거에 대한 집합적 기억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서로 다른 언론을 소비하며 상이한 집합의식을 형성한 집단들은 결국 분열된 국지적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적대적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를 도덕 공동체(moral community)라 부르고자 한다.

3) 도덕 공동체의 창조

저널리즘은 집합적 열광을 통하여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때의 공동체는 물론 ‘상상의 공동체’이자 ‘매개된 공동체’이다. 뉴스 이용자들은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지만 기사를 함께 보고 읽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함께 있음’을 느끼게 되고 명시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여 서로 알거나 만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는 서로 공유하는 목표와 가치를 구심점으로 한 공동체에 소속되었음을 인식한다.

전통적인 저널리즘 의례가 만들어내는 상상 속의 공동체는 의례가 발생하는 순간에 생겼다가 사라지기 쉬운 일회성 경험이었다(Collins, 2004/2009, 130쪽). 그러나 신문과 방송을 통해 소비되는 전통적 저널리즘의 집합적 열광이 스마트폰을 통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SNS와 모바일 메신저 등 개인 대 개인의 가상적 대면 관계에 의한 상호작용 의례(interaction ritual)의 열광과 맞물리면서 상상의 공동체는 소멸되지 않고 더욱 강력한 상호 동조와 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¹⁾ 의례가 일상의 모든 순간과 장소에 편

제하게 되면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집합적 열광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일반적 열광’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 열광은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집합적 신념과 가치에 반복적으로 정당성과 자부심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사이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특정한 정체감을 중심으로 구성원을 통합한다.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집합적 열광을 일반적 열광으로 바꾸어낸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종편이다. ‘종합편성채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전체 편성의 상당 비중을 시사 보도로 채운 종편은 자극적 보도와 논평을 앞세워 하루 종일 TV를 시청하는 장·노년층 시청자를 공략했다. 파편화되었던 보수 성향의 시청자는 하루 종일 종편을 반복 시청하며 일시적 카타르시스를 넘어 집합의식의 형성을 경험하게 된다. 고립된 개인에서 가치와 정체성, 연대감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진화한 것이다.

중요한 점은 저널리즘 의례가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성과 속의 이분법적 상징체계에 근거하여 도덕적 선악 구분을 강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이 도덕 공동체는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개방적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들이 구성한 상징적 질서에 편입된 이들만을 아우르는 폐쇄적 공동체다. 이들이 내세우는 성과 속의 대립적 이항은 공통점을 전혀 가지지 않은 절대적으로 이질적이며 상호배제적인 양극단이다(Durkheim, 1965, p. 55). 따라서 의례로서의 저널리즘이 만들어내는 도덕 공동체는 자신들의 상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외부의 공동체와 결코 공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독선적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 의례가 공동체들 사이의 적대와 갈등을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 분열 공중(최영재, 2011), 집단 극화(오미영, 2011) 등으로 설명된 현상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공동체는 이성적 사고와 개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공동체라기보다는 끈끈한 정서적 동질감에 기반을 둔 집단주의적 공동체라는 점에서 배타적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 뉴미디어 기술은 유기적 연대(organic solidarity)에 의해 작동하는 오늘날 분화된 산업사회의 조건에서 전통적 부족 사회에 가까운 새로운 유형의 기계적 연대(neo-mechanical solidarity)를 만들어낸다(Schroeder & Ling, 2013, pp. 796-798). 물리적 차원에서 볼 때는 유기적 연대가 말하는 바와 같이 개인이 고립된 사적 공간에서 자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기계적 연대가 이루어지던 전통 사회의 비합리적 집단주의를 보이게 된다. 소속감과 동질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기

1) 상호작용 의례의 연쇄를 주장한 콜린스는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면대면 상호작용을 의례의 필수적 조건으로 규정하였다(Collins, 2004/2009). 그러나 여기서는 매개된 상호작용 역시 상호작용 의례와 사회적 결속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링의 입장(Ling, 2008)을 채택하였다.

계적 연대의 공동체는 원시 부족 사회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재현할 수 있고 이는 상이한 도덕적 질서를 내세우는 공동체들 간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념보다는 감정 대립의 양상을 띠면서 극한적 투쟁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의 갈등은 의례가 만들어내는 도덕 공동체 간의 대립으로 파악할 때 명확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4. 의례적 저널리즘의 형성 과정

지금까지 몇 가지 구체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널리즘이 의례로서 작동함을 논증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라는 시공간적 조건이다.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례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시도는 물론 유용하지만 이 글의 목적은 공간을 불문하고 모든 저널리즘이 의례의 성격을 갖는다거나 한국의 저널리즘이 시간적 조건과 무관하게 언제나 의례의 성격을 가졌다는 주장을 펴는 것과 거리가 멀다. 한국 저널리즘이 다른 사회나 이전 시기 한국 사회의 그것과 달리 근래 들어 강력한 의례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을 밝히려는 것이다. 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저널리즘의 의례적 속성이 두드러지는 변화가 나타난 걸까?

앞서 밝혔듯이 오늘날 한국 저널리즘으로 하여금 기존에 비해 획기적으로 강화된 의례적 속성을 갖도록 만든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뉴미디어 기술이다. 그러나 기술의 변화는 발전된 사회라면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변수이며 서구의 언론 역시 디지털 기술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면 어쩌서 유독 한국 사회에서만 기술의 변화가 의례적 속성의 강화로 이어진 것인지 그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의 영향에 대한 일반 이론에서 벗어나 기술의 변화가 한국 사회의 고유한 맥락과 맞물리는 상호작용의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기술결정론에 입각한 디지털 미디어 담론은 디지털 기술이 자체의 내재적 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본다. 이때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방향은 선형적으로 결정된 필연의 결과이다. 그러나 현실 속의 디지털 기술은 그것이 속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교섭과 조정을 거치며 우연적(contingent)으로 발전하며 그것이 가져오는 변화의 방향과 내용 역시 기술과 사회의 유기적 결합 양상 및 상호작용적 관계에 따라 다양하고 유동적이다(강상현, 2015). 따라서 한국 저널리즘에서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수용되고 대중화하는 시점에서 저널리즘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의 역동적 변화 및 이들과 기술 사이의 상호관계가 종합적

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인터넷이 뉴스 생산에 도입되고 온라인 저널리즘이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 저널리즘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과 디지털 기술이 결합하는 구체적 과정을 살펴본다. 이 글의 취지는 새로운 이론적 접근을 제안하는 것으로, 본격적 역사 분석은 본 논문의 범위 밖의 일이다. 다만 탐색적 차원의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디지털 저널리즘이 대안적 공론장의 활성화가 아닌, 의례적 기능을 통한 도덕적 정파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과 배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디지털 이전의 저널리즘: 언론권력의 도덕적 질서 구축(1987~2000)²⁾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의례적 저널리즘의 징후는 존재했다. 집합적 열광을 통해 통합적 공동체를 창조하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었지만 언론은 특정한 상징체계에 기초하여 도덕적 헤게모니를 과시하며 상징 폭력을 행사했다. ‘언론권력’이라 불린 이러한 저널리즘은 일탈적 개인 또는 집단을 한국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이해관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사소한 사건에 과민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공황’(moral panic)을 만들어냈고(Cohen, 1973) 이를 수습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재통합해나갔다. 선과 악의 상징적 경계를 바탕으로 문화적·도덕적 통합을 기획한 이 시기의 언론이 의례적 저널리즘의 초기 형태를 이루었다.

1987년 자유화 이전까지 한국 언론은 철저히 국가권력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군부 독재 정권의 붕괴 이후 국가와 언론 사이의 힘의 균형이 급속히 반전되었다. 언론은 국가 권력이 약화되어 지배연합 내부에 권력의 공백이 발생하자 여론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 재빨리 강화된 지위를 확보하며 이른바 ‘언론권력’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박승관·장경섭, 2000; 최장집, 1994). 언론의 보도는 지배 블록 내에서의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실천은 주로 특정한 도덕적 헤게모니의 구축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통상적 시각에 따르면 언론권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계기는 언론이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정치권력 창출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1992년 14대 대선이다.³⁾ 그러나 이미 그 이전부터 언론권력은 맹아적 단계에 있었으며 이를 암시한 국면

2) 독재 정권의 통제 등 정치적 요소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주화 이전의 한국 저널리즘에 대한 문화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그리 유용하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1987년 자유화 이후의 저널리즘부터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강경대 군 치사 사건 이후 전개된 ‘1991년 5월 투쟁’이다. 이전까지의 저널리즘이 운동 진영에 대한 정권의 공세에 보조를 맞추는 수준이었다면, 1991년 5월 국면에서의 저널리즘은 저항의 흐름을 봉쇄하고 반동적 사회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이유경, 2002).⁴⁾

특히, ‘6·3 외대 사건’에서 언론권력은 이항대립 구도를 조직하고 확산시킴으로써 특유의 도덕적 질서를 구축, 5월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6월 3일 한국외대에서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가 학생들로부터 달걀과 밀가루 세례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수 신문들은 6월 4일자 1면 기사에서 “계획된 폭력”(〈동아일보〉, 1991, 6, 4), “짓밟힌 인륜”(〈중앙일보〉, 1991, 6, 4)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고 이 사건을 학생운동권 전체의 도덕적 일탈로 규정했다. 사실에서는 “마지막 강의를 하는 나라의 어른”을 폭행한 “천둥벌거숭이”(〈조선일보〉, 1991, 6, 4), “마지막 수업”을 하러 온 노교수를 모욕하고 구타한 도덕적 패륜”(〈동아일보〉, 1991, 6, 4)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학생운동 세력은 정 총리 서리를 1989년 전교조 교사를 대량 해직시킨 ‘전 문교부장관’ 또는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국가 권력을 상징하는 ‘국무총리’로 인식했지만 보수 신문들은 그에게 감히 저항해선 안 되는 ‘노스승’이나 ‘어른’의 위치를 부여했던 것이다(이유경, 2002). 저널리즘은 스승 또는 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적 윤리를 ‘성스러운 것’으로, 이를 위배하는 행동을 ‘속된 것’으로 규정하는 이항대립 구도 속에 사건을 끼워 넣음으로서 정치적 갈등의 사안을 도덕의 문제로 치환했고 나아가 “중심권의 시민세력과 그 지식인, 교수, 교사, 종교인, 재야, 법조인, 전문직 종사자, 양식 있는 학부모들은 과감하게 일어서서 저 집요한 극좌 운동권의 타락한 몸짓을 그만두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선일보〉, 1991, 6, 6). 속된 것은 곧 악한 것이요, 악한 것은 또한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정화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덕분에 수세에 몰렸던 국가권력은 국면 전환에 성공했다.

언론권력의 상징 폭력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언론권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저널리즘이 구성하는 상징체계가 더 이상 전통적 윤리사상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속된 것’, ‘악한 것’은 성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

3) 2001년 9월 6일 정동채 당시 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 정책 자료집을 통해 “한국에서 언론이 독자적인 권력화의 과정에 들어선 것은 1987년 6·29 선언 이후”라며 “92년 대선 이후 언론권력은 더 이상 정치권력의 지배 또는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지 않고 정치권력과 거래를 하는 대등하거나 우위를 누리는 새로운 권력으로 성장했다”고 지적했다(김의겸, 2001).

4) 1991년 5월 5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김지하 시인의 기고문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 기고문은 “죽음의 고향 당장 걷어치워라”는 부제로 유명하다.

와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외부의 적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대체된다.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대치되거나 언론권력의 상징체계를 이탈한 이들은 외부의 악 북한과 근친하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낙인찍혀 정화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일보〉가 김영삼 정권 당시 한완상 통일원장관과 김정남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 김대중 정권 시절 최장집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 등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 ‘사상검증’이라는 이름의 공세를 펼쳤던 것은 그러한 도덕적 정화의 일환이었다. 월간조선은 한 장관에 대해서는 “한장관의 논문에 나타난 한국전쟁관은 수정주의 학설에 가깝고 북한 측을 굳이 옹호하려는 논리”라며 공격했고(최장원, 1993), 김 수석에 대해서는 “김일성과 북한에 관계된 것에는 상당히 관대하지만 이승만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물으며 상대를 자신들의 상징체계 안에 위치시킨다(조갑제, 1994).

또 최장집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면전이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것”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 “결론적으로崔위원장은 6·25 전쟁을 평가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불리하게, 북한에 대해선 유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우종창, 1998). 이어서 〈월간조선〉은 최 위원장이 그람시 이론의 진지전 방식을 통한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장원준, 1998). 조갑제 편집장은 “우리나라의 요사이 상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좌익 또는 좌파들이 이념적 주도권을 잡은 곳이 많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며 이것이 그람시의 ‘진지전’ 방식의 결과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조갑제, 1998). ‘더러운 것’이 격리 또는 퇴치되지 않고 ‘깨끗한 것’의 경계를 넘어와서 한국 사회의 분류 기준을 어지럽히는 도덕적 위기를 경고하는 것이다. 이 같은 언술에는 자신들의 일방적 분류 기준에 따른 도덕적 질서를 이탈한 개인 또는 집단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경각심을 조장하고 그들을 징벌하여 기존 질서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자리 잡았다.

2) ‘조중동 대 한경대’: 집합적 열광의 형성(2000~2002)

1997년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가 출범하고 포털 다음이 국내 최초 무료 웹메일 서비스 한메일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는 또 다른 포털 네이버가 출범했다. 인터넷 대중화의 시작이다. 이후 온라인 저널리즘이 보편적 뉴스 소비 형태로 확산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00년 5월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며 ‘포털로 뉴스를 보는 시대’가 열렸다. 이보다 조금 앞선 2000년 2월에는 인터넷 뉴스사이트 〈오마이뉴스〉가 설립되었다. 2001년에는 〈프레시안〉이 창간되는 등 인터넷 뉴스 미디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뉴스 소비 습관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도입과 확산이 이루어진 2000년 전후의 한국 사회는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 이후 정치엘리트와 대자본 중심의 보수적 지배연합과 개혁적 시민사회 간의 정치적 헤게모니 다툼으로 불안정한 세력 균형이 유지되던 상태였다(강명구, 2004; 박승관·장경섭, 2000). 정권을 놓쳤지만 여전히 기득권을 장악하던 보수 블록과 소수 정권을 중심으로 응집하여 한국 사회의 견고한 지배 구조를 혁파하려 한 신흥 개혁 블록 사이의 치열한 쟁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등장한 인터넷은 정치담론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이기형, 2004). 보수연합 내에서 이데올로그로서 지배 담론을 조직하며 독자적 지위를 강화해온 언론권력도 이 파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먼저 〈서프라이즈〉 등 정치웹진과 인터넷 신문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며 정치담론의 양적 성장을 주도했다. 뚜렷한 당파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들은 시민사회 내의 헤게모니 투쟁 촉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언론권력에 대한 진보개혁 진영의 문제 제기에서 촉발된 언론개혁 담론을 활성화하는 등 정치담론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도 인터넷의 역할이 컸다. 언론권력의 반복되는 상징 폭력에 반발하며 시작된 안티조선 운동의 참가자들은 ‘인물과 사상’ 홈페이지와 1999년 출범한 ‘안티조선 우리 모두’ 사이트를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논쟁을 벌였다(한윤형, 2010).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등 인터넷 미디어들은 안티조선 운동을 적극적으로 기사화하며 주요한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켰고 〈한겨레〉와 〈경향신문〉도 각각 홈페이지의 ‘한토마’와 ‘언바세바’ 게시판 등을 통해 네티즌의 참여를 독려했다(이기형, 2004).

담론 환경의 질적 변화도 있었다. 젊은 세대 중심의 초기 인터넷 공간은 진보적 프레임의 담론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며 개혁 블록이 현실 공간에서의 열세를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다. 다양한 토론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의견의 폭발적 표출이나 인터넷의 멀티미디어성을 활용한 풍자성 정치 패러디물의 유행은 상징적 권력을 가진 보수적 전문가 집단 중심의 기존 담론 시장에 균열을 냈다. 또한 인터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가상적 공현존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정치담론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흥분과 열정을 창조해냈다. ‘수구 대 개혁’의 이항대립적 세계 인식에 기초하여 악마화된 수구세력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고양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유행한 정치 웹진은 특정한 정치적 시각과 함께 정치적 열정을 끌어냄으로서 정치담론을 이성의 영역에서 감성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이기형, 2004).

인터넷을 진원지로 삼은 2002년의 월드컵 거리응원과 대규모 촛불집회가 한국 사회에

가져온 문화적 변동도 고려되어야 한다.⁵⁾ 시민이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광장에서 무리를 이루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을 분출했던 에너지는 이후의 정치담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노진환, 2002). 민족주의 정서에 바탕을 둔 현실 속 의례가 필연적으로 창조하는 뜨거운 열정과 흥분이 이후의 정치 참여에 반영되어 ‘정념의 정치’를 촉발한 것이다. 정치는 이제 분노와 환희,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추구하는 도덕적 투쟁의 드라마가 되었으며 이는 직후 치러진 대선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선거 보도를 집합적 열광으로 견인한 중요한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터넷은 신문 산업의 위기를 불러온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인터넷 기술의 국내 도입은 IMF 구제 금융과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다. 언론사 전체 차입금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서는 등 대다수 언론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상태(박태건·이영태, 2002)에서 매체 환경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특히, 신문 산업은 IMF 금융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광고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며 구조적 위기에 봉착했다(이상기, 2002). 케이블TV나 디지털위성방송 등 신규 방송 사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2001년 사상 처음으로 총 광고비 중 신문 광고의 점유율(32.3%)이 텔레비전 광고 점유율(36.1%)에 역전을 허용했던 것이다(이명천·김요한, 2010, 336쪽). 광고 의존도가 기형적으로 높은 수입 구조에서 불황과 매체 간 경쟁 심화라는 이중적 압박에 따른 광고 격감은 지면 감면, 무급 휴직제 도입, 임금 삭감 등 대다수 신문사를 긴축 경영에 나서게 만들었다(김태수, 2000).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라는 데 있었다. 인터넷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는 반면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하면서 신문 미디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심화되었다(박소라, 2000).

이 같은 맥락에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전격 단행되었다. 2001년 2월 김대중 정부에 의해 이뤄진 언론사 세무조사가 한국 저널리즘에 미친 영향은 심대한 것이었다. “권력과 언론의 밀월이 깨지는 순간”이라는 평가(고영재, 2001)처럼 언론사 세무조사는 ‘권언유착’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그러나 중국에 세무조사가 ‘정부와 언론 사이의 건강한 긴장관계’라는 이상적인 형태로 귀결된 것은 아니었다. 언론이 ‘정권’이 아닌 ‘정파’와 유착하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된 것이다(김균·이정훈·박영흠, 2012).

5) 월드컵 거리응원은 ‘붉은 악마’가 인터넷을 통해 조직한 결과였고 촛불시위는 ‘앙마’라는 네티즌이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들을 추모하는 촛불시위를 광화문에서 열자고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세무조사 정국을 계기로 이전까지 서로 대립적 관계에 있던 이질적인 신문들은 각각 ‘조중동’과 ‘한경대’라는 동질적 그룹으로 묶이게 되었고⁶⁾ 각각 한나라당, 민주당과 강력히 결속하여 각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되었다. 조중동이 계발한 정권 비판의 논리를 한나라당 의원이 인용하면 이를 조중동이 다시 받아서 보도하고(고명섭·권혁철, 2001), 〈한겨레〉가 신문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요구하면(정연주, 2001) 곧바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었다. 정파적 저널리즘의 문제점은 2002년 치러진 16대 대선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정파의 집권은 곧 자신들의 실패를 의미했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상대방 후보의 당선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자 했다. 조중동은 노무현 후보를, 한경대와 〈오마이뉴스〉는 이회창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그러한 보도의 기저에는 논리와 이성보다는 감정과 일방적 혐오가 깔렸다. 가령 조중동은 2002년 4월 노무현 후보의 ‘〈동아일보〉 폐간 발언’ 파문 당시에는 “독선적”, “무책임한 포폴리즘의 전형”(〈동아일보〉, 2002)이라며 혹독한 비판을 퍼부었지만 이회창 후보에 대해서는 “가슴에 와 닿는다”, “강한 혁파 의지가 엿보인다”(〈중앙일보〉, 2002)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16대 대선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이 이전 대선과 달리 정파적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최진호·한동섭, 2012) 선명한 정파적 저널리즘 구도를 완성시킨 선거이자 집합적 열광이 본격화된 첫 선거로 기록되었다.

지배 헤게모니와 대항 헤게모니 간 갈등의 큰 흐름 속에서 본다면 세무조사 정국을 기점으로 정파적 구도의 저널리즘이 형성된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신문이 단순히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 정치의 특정 정파와 이해관계로 묶인 운명공동체가 된 변화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김균·이정훈·박영흠, 2012). 언론사가 이념이 아닌 실질적 이해관계를 연결고리로 하여 특정 정파와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해나가고 상대 정파에 대한 감정적·도덕적 혐오를 표출하게 된 변화를 정치적·문화적 요소로 환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국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변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종이 신문 시장은 2001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대부분의 언론사가 매출액 감소, 이

6) 1996년 ‘신문전쟁’을 벌이고 1999년 홍석현 〈중앙일보〉 당시 사장이 구속될 당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중앙일보〉를 맹렬히 공격했던 데서 보듯 세무조사 이전까지 세 신문사의 관계는 적대적이었다. 논조 역시 1997년 대선에서 〈동아일보〉가 중립을 지키는 등 동질적이지 않았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거리도 지금처럼 가깝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처음부터 세무조사를 강력히 지지하며 정국을 주도한 〈한겨레〉와 달리 초반에는 신중한 접근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등 중립적 논조를 보였으나 세무조사 정국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겨레〉와 유사한 스탠스로 변화해갔다.

익률 하락 등 재무비율 악화에 시달리게 되었다(한국언론재단, 2002). 이때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세무조사와 법인세 추징은 경영상의 불투명성이 심화된 상황에 놓였던 신문사에게 큰 악재로 작용하였고(이상기, 2002), 신문사는 디지털 이후의 장기적 존립을 위한 중대한 방향 전환을 요구받았다.

다시 말해 신문사는 경제적 생존과 상업적 목적을 위해 자신을 후견해줄 특정 정파와의 강고한 결속을 선택하였으며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은 이 같은 고도의 상업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김균·이정훈·박영흠, 2012). 이명박 정부에 우호적 편향성을 드러낸 신문사들이 종합편성채널 사업권을 획득하거나 정부 광고를 안정적으로 수급한 데서 보듯, 특정 정파와의 결속은 이 정파가 정치권력을 장악하였을 때 신문사의 상업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결정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언론사와 정파 사이의 결속이 기업의 중장기적 생존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자기 정파에 대한 우호적 보도와 상대 정파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이전에 비해 노골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승자 독식 게임인 대선에 언론사들이 감시자가 아닌 당사자로 개입하여 특정 정파와 함께 '전부 아니면 전무'의 도박을 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기업적 안정을 위협하는 상대 정파를 타협할 수 없는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선악의 이분법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처럼 16대 대선 보도에서 발견되는 집합적 열광은 정치적·문화적·경제적 맥락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등장 배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다.

3) '애국보수'와 '깨어있는 시민'의 출현: 도덕 공동체의 완성(2003~현재)

2002년 대선을 거치며 명확해진 정파적 저널리즘 간 대립 구도와 집합적 열광으로서의 보도는 이후 한국 사회에 하나의 상수로 자리 잡았다. 의례적 저널리즘은 지속적인 집합적 열광을 통해 일반적 열광을 만들어냈고, 특히 2004년 대통령 탄핵 정국,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집회, 2011년 팟캐스트 〈나는 꿈수다〉 현상 등 몇 차례의 주요한 국면을 거치며 특정한 도덕 질서를 중심으로 견고히 통합된 공동체를 창조했다.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 열광이 만들어낸 도덕 공동체의 대표적 사례는 각각 '애국보수'와 '깨어있는 시민'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네티즌이다.

'애국보수'는 지배 블록의 인식체계와 역사관을 공유하는 극우적 네티즌이 자처하는 이름이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이들을 싸잡아 종북(從北) 프레임으로 몰아붙이는 매카시즘적 행태에 익숙하다. '깨어있는 시민'은 친노 정치 세력이나 〈나는 꿈수다〉를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시민을 이르는 말이다. 비판적 뉘앙스

를 담아 ‘깨시민’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2012년 치러진 18대 대선은 ‘애국보수’와 ‘깨어있는 시민’의 존재가 명확히 드러난 선거이자 저널리즘이 이들 도덕 공동체를 타깃으로 한 의례적 저널리즘의 행태를 어느 때보다 빈번하게 보여준 국면이었다. 대선 기간 내내 ‘애국보수’와 ‘깨어있는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선으로, 상대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는 이분법에 따라 정치 집단이나 일반 시민들을 편 가르기하며 인터넷 게시판과 SNS 공간을 누볐다. 이들은 자신이 무조건 선하다는 도덕적 우월주의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과감히 드러낸다. 타인을 심판하고 공격하는 데도 거리낌이 없다.

가령 ‘깨어있는 시민’들은 대선 기간 내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 성향,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좌파 성향의 네티즌들과 그야말로 좌충우돌 논쟁을 벌이는 행태를 보였다. 또 이들은 집단 내의 결속력이 대단히 강하며 집단의 리더를 영웅시하거나 숭배하는 과도한 팬덤을 보이기도 한다. 반면 상대 집단의 리더는 증오 또는 저주의 대상이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를 특정 동물에 비유하고 SNS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에게 욕설 멘션을 보내기도 했다.

저널리즘은 자신과 도덕 공동체가 공유하는 상징체계상 ‘성스러운 것’을 옹호하고 ‘속된 것’을 공격함으로써 도덕 공동체들이 더 강렬하게 감정을 이입하게 만들며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했다. 대선 당시 종편의 시사토크쇼가 안철수 후보를 “한마디로 젖비린내난다”고⁷⁾ 대선 후보 TV토론에 참여했던 이정희 후보를 “싸가지 없는 며느리”라고 폄하하고⁸⁾ 2011년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형광등 1백 개를 켜놓은 듯한 아우라”라고 칭송한 것⁹⁾은 도덕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도덕적 정화가 이루어지는 쾌감을 선사하기 위함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도덕 공동체들은 정보의 진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이 속한 ‘선한 집단’에 유리하고 ‘악한 집단’에 불리한 정보만 선별적으로 수용, 유통시키고 모든 사안을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를 보여줬다. SNS에서 ‘애국보수’ 네티즌은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조중동의 기사만 퍼 나르고 ‘깨시민’ 네티즌은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한겨레>·<경향신문>의 기사만 링크하는 방식이다. 정치가 합리적 이념이 아니라 도덕이자 종교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정보의 사실 여부는 개의치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유리하고 반대하는 후보에 불리한 정보를 확산시키는 데만 몰두하는 도덕 공동체는 저널리즘을 마구잡이식 폭로로

7) 윤창중 (2012, 7, 20), <박종진의 쾌도난마>[시사 프로그램]. 서울: 채널A

8) 윤창중 (2012, 12, 11), 위 프로그램.

9) 박은주 (2011, 12, 1), <시사토크 판>[시사 프로그램]. 서울: TV조선.

변질시켰다. <나는 꼼수다>는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 5천만 원 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그 멤버인 김용민은 12월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박 후보가 ‘신천지’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극우 사이트 ‘일간베스트’ 이용자들은 TV 광고에서 문 후보가 앉은 자택 의자가 고가의 명품이라는 의혹을 담은 게시글을 올렸다. 대선 직전에는 문 후보가 금피 1천 톤을 빼돌려 소유했다는 황당한 의혹을 담은 트윗이 나돌기도 했다. 전통적 뉴스 미디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0월 1일에는 MBC가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안철수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보도를 내보내 물의를 빚었다(현원섭, 2012). 안 후보 측에게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의혹 분야 전문가들의 검증도 받지 않은 채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번 대선가도의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보도였다.

이들은 충분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았거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통적 언론 규범으로부터 명백히 이탈했지만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인터넷 언론사들이 이를 받아쓰면서 결과적으로 전통적 저널리즘 못지않게 많은 이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지면의 제약이 없고 속도의 압박만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부정확한 뉴스는 ‘의혹’, ‘논란’ 등의 제목을 달고 끊임없이 쏟아졌다. 일정 수 이상의 도덕 공동체 구성원이 집합적 열광을 위해 클릭하는 한, 언론사들이 트래픽이 보장되는 기사를 거부할 리 없었다. 의례적 저널리즘이 만들어낸 도덕 공동체가 다시 저널리즘의 의례적 속성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의례로서의 저널리즘은 대선 과정에서 자기 정파에 복무하는 열정적 투사를 만들어냄으로써 한국 사회의 정파적 갈등을 심화시켰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 계속된다.

5. 나가며

이 글이 주장하는 바는 저널리즘을 세속화된 의례로서 이해하는 접근이 한국 저널리즘을 설명하는 유일무이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저널리즘의 정파성은 정치적 헤게모니, 산업 환경, 조직 구조 등 다양한 변수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이 글은 문화적 측면을 배제해온 기존의 접근들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의례로서의 저널리즘에 집중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의례 이론을 통한 문화적 접근은 현대 저널리즘을 설명하는 기존의 이론들로 설명되지 않았던 한국 저널리즘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저널리즘의 정보 전달

기능이나 인지적 효과에만 주목하였던 지금까지의 이론적 틀에 기계적으로 대입한다면 감정적 흥분과 집단적 통합을 끌어내는 오늘날 한국 저널리즘의 특수한 측면을 설명하기 어렵다. 의례 이론은 한국 저널리즘의 정서적이고 문화적 측면과 그것이 야기하는 사회적 변동까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다른 이론보다 경쟁력을 갖는다.

또한 저널리즘을 의례로서 바라보는 관점은 단순히 한국 저널리즘의 전반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을 넘어 언론의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서도 유용하다. 한국 언론의 문제로 반복적으로 거론되어온 사실 왜곡·은폐·침묵, 의제 호도, 몰 타기, 지역주의 조장 등의 이슈들은 의례적 저널리즘이라는 큰 틀에서의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면 개별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의례 이론은 공론장 등 여타의 사회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한국 사회의 정파 갈등을 의례가 만들어내는 도덕 공동체 간의 대립으로 파악하는 시도는 이념보다는 감정 대립의 양상을 띠면서 대화와 소통이 불가능한 극한적 투쟁으로 치닫는 오늘날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해준다. 즉, 모든 것을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사고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에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이입하거나 종교적으로 숭배하며 반대되는 정파에 대해서는 과도한 증오와 저주를 보내는 한국적 이념 갈등의 비합리적 사고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왜곡된 공론장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이론으로 결코 설명될 수 없으며 의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도덕 공동체 간 갈등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의례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정파 갈등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의례로서의 저널리즘은 정파 간 다툼을 단순히 대리하거나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정파를 생산 및 재생산하는 핵심적 기제이다. 정파가 지금의 저널리즘을 만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이 지금의 정파를 만든 것이다. 의례 이론은 선악의 이분법에 기반을 두고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는 저널리즘이 한국 사회를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도덕 공동체로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강명구 (2004).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과 언론전쟁. <한국언론학보>, 48권 5호, 319-348.
 _____ (2005). 언론의 당파성. <신문과 방송>, 2005년 1월호, 43-47.

- 강상현 (2015).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변동: 미디어 기술이 과연 세상을 바꾸는가>. 서울: 쉼처.
- 고명섭·권혁철 (2001, 2, 6). '언론사 세무조사' 3대신문 보도행태. <한겨레>, URL: www.hani.co.kr/section-005100025/2001/005100025200102062126111.html
- 고영재 (2001, 10, 30). 아름다운 결별. <한겨레>, URL: www.hani.co.kr/section-001006000/2001/10/001006000200110292143001.html
- 곽병찬 (2009, 2, 11). 사이코패스의 연인. <한겨레>, 27면.
- _____ (2015, 4, 1). 당신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URL: <http://2012.hani.co.kr/arti/opinion/column/684975.html>
- 김 규·이정훈·박영흠 (2012). <'조중동' 담론의 형성과 한국 언론의 구조변동>. 2012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7-198쪽). 한국언론학회.
- 김대중 (2003, 12, 27). '4월 총선'으로 결판내야. <조선일보>, 30면.
- 김동윤·김성해·유용민 (2013). 의견지면을 통해 본 한국 신문의 정파성 지형: 공정한 중재자인가, 편파적 대변자인가.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75-122.
- 김세은 (2010). 한국 보수신문의 유사성과 차별성: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의 이념성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15호, 37-78.
- 김영옥 (2011).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사회적 소통의 위기.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70-217.
- 김의겸 (2001, 9, 6). 정동채 의원 "언론권력 92년 이후 정권 능가", <한겨레>, URL: www.hani.co.kr/section-003100001/2001/09/003100001200109061949004.html
- 김종엽 (1998). <연대와 열광: 에밀 뒤르케임의 현대성 비판 연구>. 서울: 창작과비평사.
- 김창균 (2007, 8, 10) 건국은 민족 절반을 공산주의 세력권서 구해낸 것. <조선일보>, 8면.
- 김태수 (2000, 12, 28). 언론 시장에도 '퇴출시대' 온다. <주간동아>, 52-53.
- 노진환 (2002). 네티즌이 주도한 16대 대선. <관훈저널>, 2002년 겨울호, 3-7.
- <동아일보> (1991, 6, 4). '계획된 폭력'... 모두 형사 처벌. 1면.
- _____ (1991, 6, 4). 폭력 행동은 근절해야 한다. 2면.
- _____ (2002, 4, 8). 노무현 후보, 정말 왜 이리는가. 2면.
- 박선웅 (1998).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 분류체계와 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2집 겨울호, 905-931.
- _____ (2007). 의례와 사회 운동: 6월항쟁의 연행, 집합열광과 연대. <한국사회학>, 41권 1호, 26-56.
- 박소라 (2000). 인터넷이 매체이용에 변화 가져와. <신문과 방송>, 2000년 10월호, 28-32.
- 박승관·장경섭 (2000). 한국의 정치변동과 언론권력: 국가-언론 관계 모형 변화. <한국방송학보>, 14권 3호, 81-113.
- 박재영·안수찬·박성호 (2014). 대통령 선거 보도의 기사품질, 심층성, 공공성의 변화: 1992-2012년 국내 주요 신문의 경우. <방송문화연구>, 26권 2호, 33-66.
- 박정훈 (2012, 5, 25). 외계인 집단에 세금까지 주는 나라. <조선일보>, 31면.
- 박지영·김예란·손병우 (2014). 종편 시사 토크쇼와 사담의 저널리즘: <쾌도난마>를 중심으로

- 로. 〈언론과 사회〉, 22권 2호, 5-63.
- 박진우 (2010).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의 의례 과정: 추모와 순례의 공간에 대하여. 〈방송문화연구〉, 22권 1호, 119-146.
- 박태건·이영태 (2002, 1, 18). 언론신화의 이면 (10)-“대형 광고주는 언터처블”. 〈프레시안〉, UR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2649>
- 손석춘 (2006, 6, 10). 활짝 핀 ‘악마의 꽃’. 〈한겨레〉, UR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130909.html>
- 오미영 (2011). 인터넷 여론과 소통의 집단 극화. 〈현상과 인식〉, 35권 3호, 39-58.
- 우중창 (1998, 11). 대통령 자문 정책위원장 崔章集 교수의 충격적 6·25 전쟁관 연구. 〈월간조선〉, 206-222.
- 이기형 (2004). 〈인터넷 미디어: 담론들의 ‘공론장’인가 ‘논쟁의 게토’인가?〉, 한국언론재단.
- 이명천·김요한 (2010). 〈광고학개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상기 (2002). 광고시장 점유율 하락, 법인세 추정 악재. 〈신문과 방송〉, 2002년 6월호, 122-127.
- 이유경 (2002). ‘6·3 외대 사건’에 대한 언론의 ‘상징폭력화’ 과정. 91년 5월 투쟁 청년모임 편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이후, 78-100.
- 이희은 (2014). 의례로서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회 (편),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은유들〉. (25-45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장원준 (1998, 12). 〈그람시의 陣地戰 방식이 (한국사회) 민주변혁의 전략적 경로란 무슨 뜻인가?〉. 〈월간조선〉, 72-81.
- 정연주 (2001, 2, 7). 다음은 공정거래법 차례. 〈한겨레〉, URL: www.hani.co.kr/section-0101021000/2001/001021000200102062150001.html
- 조갑제 (1994, 6). 金正男 수석의 이념과 歷史觀. 〈월간조선〉, 322-357.
- _____ (1998, 12). 편집장의 편지. 〈월간조선〉, 58-65.
- 〈조선일보〉 (1991, 6, 4). 충격… 이게 무슨 학생인가. 5면.
- _____ (1991, 6, 6). 중심권이 일어설 때. 3면.
- _____ (2005, 11, 9). 전교조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왔다. 31면.
- 〈중앙일보〉 (1991, 6, 4). 짓밟힌 언론 이대론 안 된다. 1면.
- _____ (2002, 5, 11). 이 후보의 ‘깨끗한 정부’론. 2면.
- 최영재 (2011). 분열 정치와 분열 언론 그리고 분열 여론의 악순환 이론. 한국언론학회 (편), 〈한국 사회의 소통 위기〉 (218-246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장원 (1993, 8). 추적 韓完相 통일원장관의 문제 논문·문제 발언. 〈월간조선〉, 96-111.
- 최장집 (1994).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언론과 사회〉, 6권, 40-64.
- 최종렬 (2007). 〈뒤르케임주의 문화사회학: 이론과 방법론〉. 서울: 이학사.
- 최진호·한동섭 (2012). 언론의 정파성과 권력 개입: 1987년 이후 13-17대 대선캠페인 기간의 주요일간지 사설 분석. 〈언론과학연구〉, 12권 2호, 534-571.
- 한국언론재단 (2002). 〈언론 경영실태 분석〉. 서울: 한국언론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2014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한운형 (2010). <안티조선 운동사: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역사>. 서울: 텍스트.
 현원섭 (2012, 10, 1). 안철수, 의학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 <MBC 뉴스데스크>.
 홍준호 (2006, 7, 28). '계륵 대통령'. <조선일보>, 1면.

- Alexander, J. (1988). Culture and political crisis: 'Watergate' and Durkheimian sociology. in Alexander J. (Ed.), *Durkheimian sociology: cultural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hen, S. (1973). *Folk devils and moral panics: The creation of the mods and rockers*. Routledge.
 Collins, R. (2004). *Interaction ritual chains*. 진수미 (역) (2009). <사회적 삶의 에너지: 상호작용 의례의 사슬>. 파주: 한울.
 Cottle, S. (2006). Mediatized rituals: Beyond manufacturing consent. *Media, Culture & Society*, 28, 411-432.
 Couldry, N. (2003). *Media rituals: A critical approach*. Routledge.
 Dayan, D. & Katz, E. (1992). *Media events: The live broadcasting of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Douglas, M. (1966). *Purity and danger*. 유제분 · 이훈상 (역) (1997). <순수와 위험>. 서울: 현대미술사.
 _____ (1970). *Natural symbols: Explorations in cosmology*. Penguin Books.
 Durkheim, E. (1965).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New York: Free Press.
 Goffman, E. (1967). *Interaction ritual: Essays in face-to-face behavior*. Penguin Books.
 Hermida, A. (2010a). Twittering the news: the emergence of ambient journalism. *Journalism Practice*, 4, 297-308.
 Ling, R. (2008). *New tech, new ties: How mobile communication is shaping social cohesion*. Cambridge, Mass.: MIT Press.
 Lukes, S. (1975). Political ritual and social integration. *Sociology*, 9, 289-308.
 Rothenbuhler, E. W. (1998). *Ritu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Schechner, R. (1998). *Performance theory*. New York: Routledge.
 Schroeder, R. & Ling, R. (2014). Durkheim and Weber on the social implications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Media & Society*, 16, 789-805.
 Shils, E. & Young, M. (1975). The meaning of the coronation. in *Center and periphery: Essays in macrosoci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mith, P. (1991). Codes and conflict: Toward a theory of war as ritual. *Theory and Society*, 20, 103-138.

최초 투고일 2015년 12월 11일

게재 확정일 2016년 1월 15일

논문 수정일 2016년 1월 29일

Journalism as a Ritual:

For a New Understanding of Partisan Journalism in Korea

Youngheum Park

Researcher, Sogang University

Kyun Kim

Professor, Soga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convey a comprehensive picture of the current state of Korean journalism, which is highly and explicitly partisan, by adding a new cultural dimension to ou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The basic premise of this study is that the partisan nature of Korean journalism has been supported and ensured by the emotional and moral experiences of individuals which subsequently provide an important basis for maintaining and reinforcing a sense of political belonging. Inspired by Durkheim's theory of ritual, the authors argue that journalism in Korea functions as a ritual which submits individuals to a particular collective discipline of a political group and then serves to reaffirm the cohesiveness of the group. Examining the interplay between social and technological conditions of Korean journalism, this study analyzes the historical formation of partisan journalism in Korea during last three decades. Finally, taking the current partisan journalism of Korea as a site of intervention and dislocation, the authors hope that this understanding leads us to identify a new set of theoretical issues regarding the current failure of communication structure of Korean society and journalism's role in it.

Keywords: journalism, ritual, Durkheim, partisanship, collective effervescence